



데이터 품질관리에 대한 국내외 사례에 높은 관심

최근 데이터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면서 데이터 품질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15일 코엑스 컨퍼런스 센터에서 '데이터 품질과 데이터 관리'를 주제로 한 '2004 데이터베이스 그랜드 컨퍼런스'가 개최돼 눈길을 끌었다. 데이터베이스 그랜드 컨퍼런스는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가 작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데이터 품질관리 분야 전문 행사로, 필자는 본 컨퍼런스에 발표자 겸 청중으로 참가해 국내 기업들의 데이터 품질에 대한 높은 관심과 품질관리의 현주소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글 / 이정우 데이터품질관리포럼 회장(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



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으며, 국내의 대표적 금융/통신/제조 기업의 데이터 품질관리 사례와 현재 학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관련 연구에 대한 발표도 준비됐다. 그리고 데이터 품질 관련 벤더의 솔루션과 방법론이 전시 부스와 함께 소개돼 쉬는 시간 짬짬이 솔루션도 구경하고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재미도 있었다.

데이터 품질의 A부터 Z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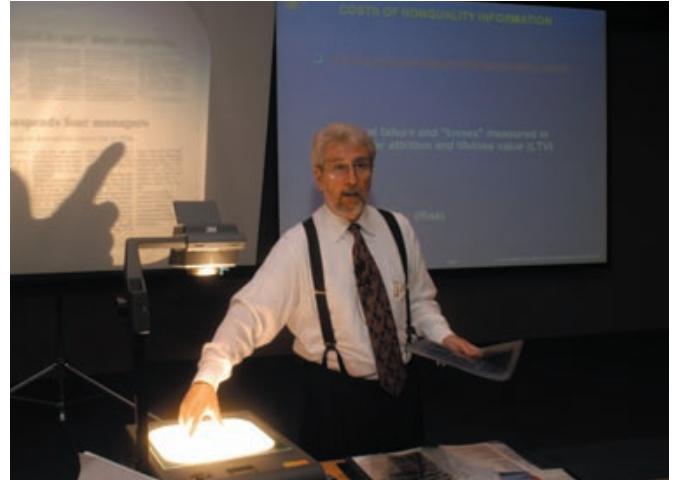
래리 잉글리쉬는 1987년 설립된 인포메이션 임팩트 인터내셔널(Information Impact International, Inc) 데이터 품질 전문 컨

금번 '2004 데이터베이스 그랜드 컨퍼런스'의 특징은 데이터 품질관리 방법론(methodology)과 사례(case study), 툴(tool)을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데이터 품질의 AtoZ'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데이터 품질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 래리 잉글리쉬(Larry P. English) 사장과 MIT TDQM(Total Data Quality Management) 센터 데이터품질관리방법론의 개발자인 양 리(Yang W. Lee) 교수의 튜토리얼이 마련돼 350여명의 참가자들

설링 회사의 사장으로, 미국, 영국, 캐나다, 벨기에 등 세계 29개국에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보잉, 브리티시 텔레콤, 벨가콤 등의 회사를 상대로 정보품질관리에 대한 컨설팅과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해외에서 데이터 품질과 관련해 이렇게 활발한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놀랍기도 하는 한편, 혹시 우리가 너무 뒤쳐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들기도 했다.

래리 잉글리쉬는 컨설팅답게 다양한 저 품질 데이터 사례의



소개로 튜토리얼을 시작했는데, 미국이 한 해 데이터 품질 문제로 지불하는 손실 비용이 GDP의 15%인 1.5조달러(약 1,800조 원)에 달하며, 데이터 결함으로 인해 호주의 한 텔레콤사가 100만 호주달러(약8억원)의 전화요금을 청구하지 못한 사례나 일본 마쓰다사이 불완전한 리스 계약에 따라 525만달러(약60억원)의 벌금을 지불한 사례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컸다. 전체 강의는 래리 잉글리쉬가 개발한 ‘TIQM(Total Information Quality Management)’ 모델을 적용한 데이터 품질 개선 방법에 대한 소개로 이뤄졌는데, 발표 내용은 물론이거니와 LCD 프로젝트와 오버헤드 프로젝터를 번갈아 써가며 시종일관 철저하고 빈틈없이 준비된 시나리오에 따라 강의를 진행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철저한 준비로 수준높은 강의 이뤄져

오후 세션의 튜토리얼을 맡은 양 리(Yang W. Lee)교수는 재미 한국인으로 한국 이름은 이양원이다. MIT에서 학위를 마치고 노스이스턴 대학(Northeastern University)에서 경영정보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MIT TDQM 센터의 부원장을 겸하고 있는데, 강의내용은 데이터 품질의 필요성과 그 측정에 초점을 맞춘 연구 발표에 가까웠다. 로제타스톤의 발견과 데이터 품질관리의 비유로 시작한 강의는 참석자들에게 매우 설득력 있게 다가왔으며, 데이터 품질의 요소를 내재적(Intrinsic) 품질, 문맥적(Contextual) 품질, 접근적(Accessibility) 품질로 분류한 프레임워크는 우리 정보 산업계의 데이터 품질관리 움직임에도 적용해 볼 필요가 있을 듯 하다. 신을 넘은 나이에 해외에서 당당하게 자리 잡고 있는 재미 한국인의 모습에 매우 흐뭇한 한편, 가슴에 한국의 모습을 잊지 않고 품고 있는 것을 느꼈을 때 매우 기쁘기도 했다.

또 다른 세션에서는 KT, 우리금융정보시스템, 포스코, 한국과

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국내 기업의 데이터 품질관리 사례가 발표됐다. KT 홍기선 과장은 지속적인 데이터 품질 측정과 피드백을 통해 시스템의 오류를 개선하고 전사적인 데이터 품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개발된 DQI 시스템을 제시하면서 전사적인 차원에서의 품질관리를 강조했으며, 우리금융정보시스템 이주현 차장은 정보 자산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고 저비용 고효율의 시스템 운영 체계를 지원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 시스템 구축과 통합관리의 전략적 방향성에 대해 제시했다. 아이티플러스 이승원 상무는 국내 최초로 실시된 포스코의 데이터 품질 향상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서태실 실장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도입한 정보서비스의 ISO 인증 사례를 발표해 참석자들과 데이터 품질관리의 풍부한 경험과 정보를 공유했다.

그 밖에 경희대 박주석 교수는 데이터 품질관리와 데이터 성숙도 모델, 숙명여대 문형남 교수는 웹자원의 품질평가 방법과 사례, 그리고 필자는 데이터 품질의 이론과 실제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국내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데이터 품질관련 연구 현황에 대해 발표했으며, 한국어센셜소프트웨어, 투이컨설팅, 엔코어컨설팅, 렉스켄, 수지원넷소프트, 엑셈의 솔루션과 적용 사례에 대한 소개도 있었다.

지난해 컨퍼런스보다 훨씬 다양해진 데이터 품질관리 적용 사례 발표와 늘어난 참석자수 그리고 참석자들의 진지한 경청 분위기에서, 필자는 지난 1년 사이 국내 기업들의 데이터 품질관리에 대해 높아진 관심과 수준을 가늠할 수 있었다. 또한 컨퍼런스 마지막 행사로 ‘데이터품질관리포럼’이 정식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 내년 이맘때 개최될 컨퍼런스에서는 국내 데이터 품질관리 환경의 또 어떤 변화와 성장을 체험할 수 있을지 사뭇 기대가 된다. 

컨퍼런스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www.dbq.or.kr) 참조